

개성근교 고려고분, 남북 공동발굴해야



경기 문화유산을 찾아서

>1<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남북한의 초긴장 상태가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진정됐다. 지난달 25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합의문 말미에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남북이 민간차원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화유적 발굴을 들 수 있다. 이념을 초월할 수 있고,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인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에는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가 있다. 이는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고려 시대의 무덤으로, 잘 다듬은 화강암 판석 위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네 벽에 걸쳐 12인의 인물상을, 천장 중앙에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뚜렷하게 표현했다.

인물상의 관모에는 십이지신상을 그려 무덤을 사귀(邪鬼)로부터 보호코자 했다. 주인공을 제외한 인물들의 체형이나 모습이 엇비슷해 하나의 모본(模本)으로 윤곽을 잡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도굴을 당해 중국 동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무덤은 발굴 당시 학계와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고려벽화 고분이고, 무덤의 주인공이 고려말기의 문신인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 1280~1352)이라는 사실을 새긴 석제 묘지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이 무덤이 발굴되기 이전까진 묘의 주인이 세조 때 권세를 누린 한명회(韓明澮)의 할아버지 한상질(韓尙質, 1400년 사망)로 알려져

장단군 일대 귀족 무덤 집중분포

파주서도 고려말 권준 묘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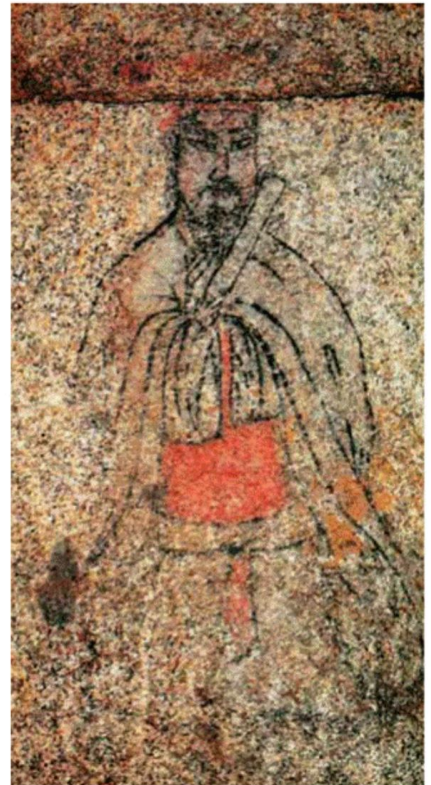
“민간교류 물꼬 사업” 협력 필요

왔다.

실제 청주 한씨 문중은 600여 년간 제사를 지냈으며, 묘역도 소유했다. 발굴 승낙까지 해 준 청주 한씨 문중의 입장에서는 실로 황당무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청주 한씨와 전혀 무관치는 않다. 권준이 한상질의 외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 그 연유는 불분명하지만, 청주 한씨 집안에서 외가 쪽의 무덤을 관리했고, 시간이 지나며 무덤의 주인공이 뒤바뀐 것.

이 무덤은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고려 귀족들은 사후 대부분 개성 근처에 묻혔기 때문에 옛 장단군 일대에는 고려 귀족의 무덤들이 집중 분포돼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0년대 초 비무장지대 조사 당시 이미 고려 고분 주변에서 많은 도굴 흔적을 확인한 바 있어,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주인공 상.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본부 제공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도 고려 고분의 체계적인 조사는 필요하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사업으로 장단군 내 고려 무덤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은 반드시 추진해 볼 만하다. 한국 전쟁 이전, 장단군을 포함한 개성 일대는 ‘경기도의 땅’이었다.

개성의 고려문화는 경기도가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쏟아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